

형제회 생활을 인정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홀로 선하시고, 충만한 선, 모든 선, 진실하고 최고의 선이신 우리의 창조주, 구속자이며 창조주 이외에는 다른 것을 원치 않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시오...” 이 말씀은 1221 년의 회칙 제 XIII 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것은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밀하게 느껴진다. 이 말들을 구성된 맥락에서 이해하십시오. 성 프란치스코는 이 감사의 경험을 우리와 나누려고 한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일상에 가득히 찬 감사 의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regula* (규칙)이 있기 전에, 그의 모든 욕망을 사로잡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vita* (생활)이 있었다. 그와 형제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에 동참하도록 권유하여 그와 형제들이 복음 헌신에 뿌리박게 하는 깊은 감사를 교회와 세상에 드러 냈다.

형제회 생활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것은 이상한 꾸러미로 나온다. 때로는 손실 또는 실수로 보인다. 비처럼 내린다. 씨앗처럼 작용한다. 형제회 생활은 믿을만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원자일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형제회 생활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것을 준다. 우리가 서약한 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는 창조, 구속, 구원을 넘나드는 프란치스코의 반복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런 시작의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당신 자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은 형제적인 생활의 중심에 있는 신앙 관계의 풍부하고 개인적인 본성을 드러낸다. 프란치스코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숭배하고, 봉사하며, 찬양하고, 축복하고, 칭송하고, 높이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무조건적인 하느님의 선하심, “충만한 선, 모든 선, 진실한 최고의 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권고한다.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감사의 미덕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성 보나벤퉈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은 관대함과 사랑의 하느님이다. 보나벤퉈는 프란치스코를 놀라운 선물의 수혜자로 본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도 중요하다. 진실 속에서 견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의 세상, 하느님의 참된 현실을 깨우치고 싶다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슬직해집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누구인지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내 의식이 내가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측면을 간과했다. 존재보다 일을 앞세움으로써, 우리는 자아에 갇혀 자신의 정체성이 분열되어 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사는 데 무심하게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형제회에 감사하십시오.